

# 한국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과 전개 양상

정 찬 영\*

##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증언소설의 외래적 경향 |
| 2. 기록문학과 증언소설   | 5. 증언소설의 전개양상   |
| 3. 증언소설의 내재적 원천 | 6. 마무리          |

## 1. 들머리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질료가 되는 현실과 그것을 재구성하는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것이 기능과 발생론적 차원에서 공리성과 모방성, 오락성과 심미성으로 다루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 또는 문학의 영역은 자신들의 삶을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과 있어야 할 삶을 상상적으로 재구하려는 노력이 동시적으로 있어 왔다. 고대 그리이스의 『일리아드 오딧세이』는 곧 그리이스의 역사적 기록이자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회구를 담은 상상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역사와 픽션을 구분하고 양자의 차이를 논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자의 분리불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예술로서의 문학과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인간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 양식임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 세부내용과 형식에는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 사실이다.)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자료와 해석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로서의 역사 역시 기록 당시의 상황이나 사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선별되므로 해석의 역사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때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는 허구로 인식되며 일차적으로 이의 올바른 복원을 기도하게 한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인간 진실을 해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역사적 기록은 항상 불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를 둔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며, 다큐멘타리적 접근법이 등장하게 된다. 예술의 기록성과 기록의 예술성을 통일 지양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의 방법으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sup>2)</sup>하게 되는 것이다. 증언소설은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개념이 된다.

모든 소설에는 항상 다소간의 증언이 있고 또한 다소간의 상상이 있다. 이 증언과 상상은 독자에게 같은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곧 증언은 객관적 신뢰를 요구하며 상상은 인간적 진실을 발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증언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상상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사건 구성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야기 방식에서 그러하고,<sup>3)</sup> 또한 작가가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일지라도 목표의식에 따라 사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예술이 상상력과 자기성찰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에 근거한다면

1)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이스의 헤로도투스 이래 역사서술은 역사적 사실의 탐구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도 문학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곧 '사건의 기록'이라는 역사의 본질적 의미에 일치하는 역사로서의 '즐거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근대 역사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역사가 선별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해야하는 것이 의무지만 결국은 이야기체로서의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역사학과 문학은 그 탐구의 대상이라는 지평에서 서로 수렴하고 있고 특히 지성사의 관점에 서는 역사가들에게는 이것이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임상우, 「역사서술과 문학적 상상력」, 『문학과사회』 19, 1992 가을 참고.

2) 김윤식, 「픽션과 논픽션-80년대 한국문학의 방향」, 『월간중앙』 135, 1979.9.

3) 이진구, 「想像文學과 證言文學」, 『사상계』 111, 1962.9.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우선하는 접근 방법의 차이일 수 있겠다. 자기성찰이 우선할 경우 그것은 기록문학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상상력이 우선하는 경우는 상상문학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증언소설은 자기성찰의 방법이 우선하며 그것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진실성과 진정성을 모색함으로써, 기록문학과 상상문학의 부분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한 소설양식이 된다.

역사적 사실이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난 후 혹은 한 시대가 지난 후에야 역사의 가치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체험적 당대이거나 역사적 사실이 현재진행일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 평가에 기댈 수 없게 된다.<sup>4)</sup> 또한 기록화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은 한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거나 왜곡된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작가들의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역사적인 진실은 놓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증언소설은 그 공백을 훌륭히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소설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도 역사적 기록의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과 증언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sup>5)</sup>

증언소설은 어느 한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준다.<sup>6)</sup> 증언소설의 목적은 모순된 현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는 그 현실은 극복하고 뛰어 넘는 세계를 그리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는 수기나 보고의 형식에 한정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소설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달의 효용성 측면에서 신문, 보고서 등의 기록 자료나 한 개인의 고

4)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한 세대(generation)를 30년으로 설정하고, 한 세대의 평가는 그 세대가 지난 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5) 증언사(Oral History)란 어떤 한 개인이 그의 인생에 대한 기억들,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목격했거나 참가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James Hoopes(유병용 옮김), *Oral History* 『증언사입문』(한울아카데미, 1995), 14쪽.

6) 예컨대 김원일의 『불의 재건』에서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외인설과 내인설 등 다양한 시각을 각 인물의 시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찬영, 「증언소설과 가족공동체주의」, 『지역문학연구』 2(경남지역문학회, 1998), 97-98쪽 참고.

백과 증언보다는 소설 형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강하다. 전자의 경우가 일회적이거나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는 전자를 모두 방법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체적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식은 소설이다. 소설은 형상화 과정을 통해 기록과 기억 너머에 있는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sup>7)</sup>

이러한 증언문학의 특성은 먼저 그 소재가 되는 사회적 역사적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인 경우, 곧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당대의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이 생존해 있고 자료 역시 점차 발굴 조사 정리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자는 증언소설을 통해 역사·사회적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언문학은 다루는 역사적, 사회적 사건이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로 전락하면 그 문학적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역사적 이데올로기와 소설형식의 성공적 만남이 증언문학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점은 증언문학이 단순한 체험이나 수기, 르포르문학 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된다.

증언문학과 연관이 있는 문학용어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 먼저 실기문학, 수기문학, 르포르문학 등의 개념이 있고, 다음으로 픽션의 대응 개념으로서의 논픽션과 논픽션 소설(nonfiction novel), 그리고 보고문학, 보고소설(Reportage roman), 기록문학 등의 용어가 있고, 또한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반전운동으로 이끈 데이빗 허버스 탐류의 보도문학과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한 뉴저널리즘이란 것도 있다.

이에 본고는 증언소설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해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문학과 상상문학의 관계 속에서 증언소설의 위치를 검토한 후, 다음으로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을 내재적 원천과 외재적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그리고 증언소설의 전개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7) Georg Lukács(반성완 옮김), *Die Theorie des Romans*, 『소설의 이론』(심설당, 1985), 76쪽.

## 2. 기록문학과 증언소설

류기룡은 우리 문학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관점과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하면서 기록문학의 의의를 검토하고 있다. 즉 상상문학에만 국한되어 온 문학 인식의 관점을 탈피함으로써 문학적 자산의 획기적 증폭과 함께 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재인식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기록문학은 시, 소설, 희곡 등 상상적 문학(imaginative literature)과는 다른 영역으로 논픽션, 다큐멘타리, 르포르, 자서전, 전기, 기행문, 수기, 일기, 서간, 생활기록 등<sup>8)</sup> 일회적이며 사실의 실존적 소재만을 문학 세계로 삼는 삶의 실재적 증언이자 현실성 있는 역사이며 문학인 것이다.

기록문학(Non-fiction Literature)은 창조적 문학(Creative Literature)과는 대응하는 문학으로 일회적 사실의 실재적, 체험적, 현실적 소재만을 바탕으로 한 산문 문학이다. 그리고 이 기록문학은 우리 문학 자산 중에서 상당한 양의 창작과 함께 많은 독자층의 확보가 가능하며 사마천의 『사기』 속의 「열전」과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등 기원전부터,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열전」으로부터, 또한 여러 나라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위개념에 다양한 장르를 설정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문학은 창조성·허구성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시각을 넓혀 기록문학을 포함하는 범주로 확대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sup>10)</sup> 조동일 역시 문학

8) 柳基龍, 『韓國記錄文學研究』(榮雪出版社, 1978), 9-18쪽 참고.

9) 류기룡은 기록문학의 하위장르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敘事的記錄文學: 년픽션 스토리, 서간체스토리

交誼的記錄文學: 서간문, 연설문, 초대문, 인사의 문헌

體驗的記錄文學: 기행문(기행가사), 여행기, 탐험기, 생활기록, 수필, 비망록

實記的記錄文學: 전기, 자서전, 회고록, 수기, 일기, 자성록

公式的記錄文學: 보고문, 기사문, 선언서, 전의문, 격문, 결의문, 서술문 = 르포르  
르파즈, 다큐멘타리

柳基龍, 「國文學研究에서 망각지대로 남은 記錄文學」, 『國語國文學』 100호(국어국문학회, 1988), 182쪽.

10) 류기룡, 「기록문학의 영역과 형성」, 『어문논총』 11(경북대 국어국문학회, 1977) 참고.

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폭을 인정하면서 문학이라고 의식했던 영역이 시대마다 축소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이등근은 사실의 기록이 문학적 구조와 인식, 세계관과 표현방법을 동원하여 교훈성과 쾌락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사료적 가치와 함께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기록문학은 소재가 현실적 사실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에 대한 의미의 파악이며, 근대적 일반민중의 실증적인 시대정신의 발현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진정한 기록문학의 출발은 근대문학 이후에 본질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그리고 기록문학은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기록문학의 소재가 되는 사실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거나, 집단 사회의 연대의식으로 확대되는 사실은 물론, 시민의 전체성을 대변하게 되거나, 역사적 인식을 내포하게 되는 것 등이다.<sup>14)</sup> 따라서 창작문학과는 다른 공감의 확산이라는 효용성을 갖는다.

기록문학은 창작과정이나, 작품형태의 혼효성, 실존적 소재 중심의 구성, 작가 관점의 부수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실제의 사실과 그 의미의 전달이라는 문학적 효용성을 그 고유한 기능으로 한다. 우리나라 문학에서도 11세기 이후로는 기록문학의 작품존재가 확인되고 17세기 이후에는 현저하게 많은 작품이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문학의 조건은 1) 작품소재(subject matter)의 사실성(factually)이다. 따라서 과학적 실증주의 정신이 지배한다. 2)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그 표현의 체계는 시민의 일상언어에 의존한다. 3) 형태(form)의 혼효성(contamination)을 지니게 된다. 4) 작품의 구성요소가 모두 일회적이며 실재적인 소재이다. 따라서 작품 속의 소재는 작품 밖의 대상과 완전히 부합되어야 한다. 5)창작의도에서 공리적인 효용성(utility)을 지니고 있다. 소재에 대한 충격이나 체험이 선행된 뒤 작가의 해석이나 성격 규명, 가치판단 등이 후속적

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제3판)(지식산업사, 1994), p.19.

12) 이등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제20집(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12), 15쪽.

13) 柳基龍, 「韓國과 日本의 記錄文學 形成에 관한 比較研究」, 『어문논총』 19호(경북대 국어국문학과, 1985.12), 16쪽 참고.

14) 류기룡은 기록문학의 조건을 8가지로 들고 있다. 류기룡, 앞의 책, 16-30쪽 참고.

으로 이루어진다. 6) 창작 기법은 그 소재사실의 실상을 그대로 기록으로 보존하여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 이후에 작가 세계관에 의한 관점이 부가된다. 7) 기록문학은 작품의 총체적 지배원리인 현실성(actuality)에도 지배된다<sup>15)</sup> 등으로 요약된다.

기록문학은 실증적 현실성이 특징이자 지배원리이다. 이것이 소재, 창작기법, 독자나 사회에의 공감대 형성 등 공리적 효용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기록문학의 소재는 회귀하고 특수하여 자신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어야 한다.<sup>16)</sup> 하지만 기록문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그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록문학에 해당하는 문학양식의 용어는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논픽션<sup>17)</sup>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픽션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픽션만 아니면 역사문헌, 자연과학서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로뮈르타주는 주로 프랑스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고하다', '탐방하다'란 뜻이 의미하듯 미지의 인물 또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인물들에 대한 보고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다큐멘타리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논픽션과 르포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영화나 텔레비전 등 주로 영상을 전달매체로 삼는 경우가 많다. 실록

15) 류기룡, 앞의 글, 6-7쪽.

16) 류기룡, 위의 글, 6-7쪽 참조.

17) 논픽션(non-fiction)은 1912년 미국의 잡지 Publisher's Weekly가 당시의 베스트 셀러를 발표하면서 '픽션'과 '논픽션'으로 분류하여 발표한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에 의한 과거의 한 사건 또는 한 인물을 되살려내는 전기나 역사 이야기는 물론, 기록문학(reportage)과 다큐멘터리(documentary) 그리고 자기 체험에 입각한 여행기, 일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곧 논픽션이란 소설처럼 허구를 섞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흥미있게 엮어낸 이야기이다. 이 논픽션은 현실에 일어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므로써 소설이 가지지 못하는 현장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면, 구체적 사실이 상상적 허구보다 더욱 허구같은 면도 있어 20세기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이 허구보다 더 극적이고 소설이 현실보다도 무미해지고 있는 요즘에는 논픽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동아』에서는 1974년 11월부터 전기, 기록, 보고, 일기 등의 형식으로 논픽션을 모집하고 있고, 국내 각 일간신문에서는 매년 신춘문예와 방송에서도 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문학은 실록이라는 역사적 개념과 문학이라는 예술적 개념의 복합용어이다. 이는 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 그것도 지배층의 역사적 사실이나 그 이면의 사실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 연원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다.<sup>18)</sup> 기록문학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이긴 하나 고전문학에서는 구비문학의 대칭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은 각기 한계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록문학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들 문학의 특성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의 기록이라는 측면의 관점에서 허구적 상상문학과 대비된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sup>19)</sup> 기록문학은 실제적 사실의 소재로만 이루어진 문학으로 그 하위개념에 기행문, 생활기록, 서간, 전기, 자서전, 다큐멘터리, 르포르 등의 장르가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문학이나 논픽션이 사실의 기록이라 해서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여러 가지 사실의 기록 중에서 기록자의 기록목적에 따라 그 사실들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하면서, 사실의 나열에 있어서도 소설의 플롯과 같은 형식을 따름으로써 그 극적효과를 더하게 된다. 다만 사실의 기록이란 면에서 허구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8) 정영진은 실록·보고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영진, 「재미와 민중성이 결합된 기록정신」, 『한길문학』 6, 1990.10.

19) 이동근은 고전문학에서 비허구적 기록문학 전반을 총칭하여 비허구적 서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곧 고전문학사에서 논픽션 장르에 대한 명칭은 수필·잡기문학·기록문학·교술장르 등의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논픽션은 주로 픽션(현대소설)의 대칭개념이라는 점에서, 수필은 사행일기·실기 등을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잡기문학은 실용문을 포함하며 문학용어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기록문학은 구비문학의 대칭개념으로 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교술장르는 실제했던 사실을 다룬 너무나 많은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각기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허구적 서사체의 상대개념은 허구적 서사체가 된다. 이런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문학은 허구와 상상을 내포하는 개념이고 이는 허구문학 또는 상상문학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기록문학은 구비문학의 대칭개념이기도 하지만 주로 현대문학에서는 일어난 사실과 사건의 기록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필자는 기록문학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9(서울대 국문학과, 1995), 113쪽 참고.



이상을 바탕으로 하면 문학은 크게 상상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언문학은 이 양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증언문학은 예술성과 사실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한다. 즉 자료수집의 과학적 방법과 미학적 텍스트 구성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공식 언술과의 차연화 과정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 전개해 나가면서 사회적·역사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sup>20)</sup>

증언문학과 유사한 개념에는 논픽션 소설(non-fiction novel)과 뉴저널리즘(New Journalism)을 들 수 있다. 뉴저널리즘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달한 글쓰기 양식으로 최근의 역사적 사건을 다양한 소설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곧 역사 기록 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과의 개인적 인터뷰 내용 등의 사실적 근거와 장면구성, 대화 등의 소설적 장치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다.<sup>21)</sup>

증언문학은 기록되지 못하거나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창작문학이 허구적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한 데서 발생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체험의 강렬함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차단당했을 때 고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의 본격적 증언문학이 80년대 이후에 출발한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증언소설은 자신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완강한 모순으로 버티고 있을 때 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복원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증언문학은 작가의 체험 또는 증언을 바탕으로 체험적 당대이거나 한 세대의 과거를 다루고, 사회학적 방법과 문학의 융합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하며 역사적 진실성을 지향하는 소설이다.<sup>22)</sup> 따라서 증언소설은 소재가 되는 사건의 진상이 역사적으로 온전히 평가되기 전의 상황에서 유효하다.

20) 송병선, 「증언소설의 시학과 그 가능성」, 『외국문학』 46, 1996 봄 참고.

21) Nicolaus Mills, *The New Journalism: a historical anthology* (McGraw-Hill, 1974) 참고.

22) 정찬영, 앞의 글, 91쪽.

### 3. 증언소설의 내재적 원천

증언소설의 내재적 원천은 기록문학의 원천에서부터 찾아진다. 먼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 사마천의 『史記』를 들 수 있다. 실증주의 사학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인 역사나 擬似歷史 pseudo-history의 한 형태로 폄하될 것이지만 ‘예술로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는 역사서술의 한 전범을 보이는 것이다. 『史記』는 역대 중국 正史의 모범이 되는 紀傳體 형식을 창안했는데 제왕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本紀」와 개인의 활동을 서술한 「列傳」이 복합된 형식이 그것이다. 『史記』는 그외에도 여러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편리한 「表」, 제후왕과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한 「世家」, 그리고 문물제도의 연혁과 원리를 서술한 「書」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史記』는 역사서로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왔는데 그것은 뛰어난 문장력과 서술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일화의 제시라는 허구적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그리고 우리문학사에서의 기록문학 전통은 기행문의 성격을 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과 역사서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 『제왕운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학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는 창조적 문학의 영역이며 열전은 기록문학의 관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열전은 실존한 인물에 대한 전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경우 삼국사기 총 50권 중에서 41권부터 50권까지 10권 분량으로 총 69명의 인물에 관한 것이다.<sup>24)</sup>

다음으로 증언소설의 발생본적 동인은 조선조의 실기문학(實記文學)<sup>25)</sup>을 들

23) 이성규, 「『史記』 역사소설의 특성-「文史一體」의 一典型」, 『외국문학』 3(1984, 겨울)와 전해종, 「중국인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역사의 이론과 서술』(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5) 참조.

24)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정섭의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 고찰」, 『문학과 지성』 35, 1979 봄 참고.

25) 이미 고전문학에서는 기록문학에 대한 연구성도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민음사, 1992)  
 소재영, 「임진왜란과 소설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민음사, 1992)

수 있다. 실기문학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생생한 현장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현장에서 느낀 개인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문학이다. 따라서 역사로서의 성격과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sup>26)</sup> 역사의 격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실기문학은 보고·기록이라는 측면과 작가의 역사의식이 가미된 문학 양식인 것이다.

임진왜란 실기의 경우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경득의 『만사록』, 정희득의 『정유피난기』 등 수십편의 작품이 있다.<sup>27)</sup> 이런 임난실기의 내용상 유형<sup>28)</sup>은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작가들이 포로생활 중의 일을 기술한 실기인 포로실기<sup>29)</sup>와 임진왜란에 장군으로 종사관으로 의병으로 참여하여 왜적과의 전투상황, 진중생활 등을 기록한 종군실기 그리고 여러지방을 피난다니면서 피난생활을 기술한 피난실기, 선조의 피난길을 동행하면서 기술한 호종실기 등이 있다.<sup>30)</sup>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민음사, 1992)

조동일, 「허균 세대의 임진왜란 체험과 한시의 변모」, 『임진왜란과 한국문학』(민음사, 1992)

이동근, 「임란 전쟁문학 연구」(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문학 연구」(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한태문, 「조선 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김명식, 「간양록 연구-전쟁문학적 관점에서」(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일지사, 1992)

장경남, 「임란 실기의 문학적 특성 고찰」, 『송실어문』 제11집(송실대 송실어문연구회, 1994)

26) 이채연, 앞 논문, 59쪽.

27) 임진왜란 실기문학 작품은 『간양록』, 『고대일록』, 『금계일기』, 『기재사초』, 『난중일기』, 『난중잡록』, 『만사록』, 『문소만록』, 『서정일록』, 『소미록』, 『용사일기』, 『용사일기』, 『월봉해상록』, 『은봉야사별록』, 『임진록』, 『임진왜란일기』, 『임진조변사적』, 『정유피난기』, 『정비록』, 『호구일록』, 『호종일기』 등 대단히 많다. 임란왜란 실기문학 자료는 장경남, 「임란실기의 문학적 특성 고찰」, 『송실어문』 11(송실대 송실어문연구회, 1994) 참조.

28) 장경남, 앞 논문, 77-81쪽 참조.

29) 임란 포로실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채연의 앞 논문 참조.

30) 그리고 이동근은 임난실기를 傳과 실기로 구분하고 실기를 다시 종군기록, 전투기록, 피난기록, 피로일기, 사행기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동근, 앞의 글, 121-123쪽 참고.

임난실기의 문학적 특성은 첫째 작가의 저술의도가 교훈에 목적을 두고 기록정신이 바탕이 된다는 점, 둘째 역사적 사실기록 이상의 치밀한 묘사로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문체의 한 특징으로 詩文을 혼용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 넷째 표현의 사실성으로 사실주의 수법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 다섯째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sup>31)</sup>는 점 등이다.

사실성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근대지향의 기록문학은 17세기 이후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들 작품은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파악이며 사실소재의 작품군들<sup>32)</sup>로 『계축일기』, 『산성일기』,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서정별곡』, 『일동장유가』, 『남해문견록』, 『인현왕후전』, 『한중록』, 『북관료정록』, 『날리가』, 『서정별곡』, 『천대별곡』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록문학은 이 시기의 한글 소설들이 허구적 초현실적 세계로 향하는데 대한 결점을 보완하고자 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곧 이들 작품의 소재는 전란, 여행, 희귀한 체험 등 공동 관심의 대상이면서 현실생활과 직결된 것이다.<sup>33)</sup>

조선왕조의 외교는 중국 및 일본과 사신왕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신은 그들의 견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관례로 삼아 견문기가 발달했다.<sup>34)</sup> 그리고 17-8세기는 문학이 귀족적이고 고답적인 운문의 형식을 벗어나 근대적 산문정신에 바탕을 둔 일기, 기행, 생활기록 등의 서민문학이 발전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통신사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이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일기와 견문록 형식의 기록문학으로 남기고 있다.<sup>35)</sup>

한국 근대기록문학의 출발은 19세기 말의 「서유전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작품의 형태상의 특징, 문체의 조건 그리고 그 사상, 발표된 연대 등 여러 면에서 확인된다.<sup>36)</sup> 그리고 한말 의병 활동의 체험을 충실하게 기록한 김하락과 전수용의 「진중일기」, 이석용의 「창의일록」 등의 일기는 사료로서의 의의뿐만

31) 장경남, 앞의 글, 81-88쪽 참조.

32) 류기룡, 앞의 책, 51쪽.

33) 류기룡, 「한국과 일본의 기록문학 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어문논총』 19(경북대 국문학과, 1985), 12-15쪽 참조.

3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3판)(지식산업사, 1994), 431쪽 참조.

35) 한태문, 앞 논문, 참고..

36) 류기룡, 앞의 글, 23-26쪽 참조.

작가 나름의 관심을 실감있게 나타내고 있다.<sup>37)</sup> 그리고 20세기로 들면서 기록문학은 개화기사, 전기, 생활기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바 단계 신채호의 「이순신실기」, 「을지문덕」, 「최도통전」 등의 전기문학은 기록문학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sup>38)</sup>

류기룡은 한국기록문학의 형성은 17세기 이후의 근대 지향의 단계에서 볼 수 있던 인간중심주의 사상이, 근대 기록문학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사상으로 확대된 민권의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민권의식이 저항적 민족주의의 기록문학으로 형성되고 있다<sup>39)</sup>고 평가한다.

현대문학에서의 기록문학은 수기, 종군기, 보고문학, 르포르쉴라, 논픽션 등 다양한 용어와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시기술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조선을 중립화시키려 했던 고문관 샌즈의 기록인 『조선의 마지막 날』을 들 수 있다.<sup>40)</sup>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여러 수기가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데 『백범일지』가 대표적이고, 1950년에 한국전쟁에 관한 논픽션 및 수기는 유진오의 『고난의 90일』, 모윤숙의 『나는 이렇게 살았다-수난의 기록』, 기자들의 종군기인 『동란의 진상』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나기 전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1951년 후지하라 데이(藤原貞)의 『내가 넘은 삼팔선』이 있고 1961년 허근옥의 수기 『내가 설 땅은 어디냐』는 북한 최고 인민회의 의장 허헌의 딸이자 문화선전사인 허정숙의 여동생인 허근옥이 남한을 찾아온 이야기로 이 역시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sup>41)</sup>

오마도간척사업을 다룬 논픽션인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땅에서 못사는 한」은 『사상계』(1966.10)에 발표되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sup>42)</sup>제

3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제3판)(지식산업사, 1994), 176-181쪽 참조.

38) 류기룡, 앞의 글, 26쪽.

39) 류기룡, 위의 글, 28쪽.

40) 월리엄 F. 샌즈(김훈 옮김), 『조선의 마지막 날』(未完, 1986)

41) 이임자, 『한국문학과 베스트셀러』(경인문화사, 1998), 172-175쪽 참조.

42) 이후 이 사건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으로 소설화되었다.

이병렬, 「소설의 허구화 과정에 대한 한 연구-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연구』 창간호, 1994. 8 참조.

주 4·3 항쟁을 다룬 오성찬의 『한라산의 통곡』은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체험담을 채록한 것이다.

한국전쟁과 빨치산을 다룬 기록문학으로는 정충제의 『실록 : 정순덕』과 역시 한국전쟁 수기인 이영식(본명·육철식)의 『빨치산』 등이 있다. 그리고 이기봉의 『빨치산의 진실』은 우익 진영에서 다룬 좌익 운동과 빨치산 투쟁에 관한 글로 당시의 역사적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한 일종 보고문학으로 여기서는 『남부군』, 『태백산맥』, 『녹슬은 해방구』 등 좌익을 다룬 작품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중 남북한 양측의 종군작가단 작품 가운데 기록문학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있다.<sup>43)</sup>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기록문학으로는 사건 전모와 추이를 소상히 기록한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있고, 실록 수기적 성격이 강한 5·18 광주의거 청년동지회편의 『5·18 광주 민주항쟁 증언록 1』, 그리고 5·18 당시 시민군 치안본부장이었던 필자의 체험기인 김양오의 『광주보고서』, 윤재결 편,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중 진압군 병사의 입장에서 쓴 기록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 김성용의 「분노보다는 슬픔이」는 실록 수기적 요소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재결의 『광주 그 비극의 10일간』은 수기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당시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로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5·18 광주민주항쟁 자료집』 미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5월항쟁과 미국」(『말』 특집, 1988.5) 등이 있다.

80년대 초반의 르포르, 수기 선언문, 폭로기사 등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담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종의 과도적 문학의 역할을 유용하게 담당한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실적 기능이 전환기의 문학에서는 효과적인 공감 획득 방법이 되는 것이다. 르포르와 수기는 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생한 현장성을 가진다. 곧 르포르나 수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다.

80년대 초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사실 전달의 통로가 막히거나 비정상인 말이 범람한 시기이다. 곧 언론 통폐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언비어

43) 신영덕의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국학자료원, 1988)에는 부록에 전쟁을 경험한 종군작가들의 從軍記가 실려 있다.

의 시대로 불릴만큼 풍문이 많은 시대가 바로 80년대 초반이었다. 이런 사정이 문학에 반영될 때 그것은 직접적인 전달효과가 큰 사실성이 강한 형식이 선택된다. 곧 언론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르브르시대』와 『르브르문학』이라는 르브르전문지까지 탄생하게 된다.<sup>44)</sup>

이 시기 본격적 르브르의 시작은 70년대 후반 김현장의 『무등산 타잔과 인간 박홍숙』을 들 수 있다.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박홍숙은 1977년 4월 20일 광주에서 무허가 판잣집촌들을 철거하러 나온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한 청년이다. 김현장은 유신말기 언론의 오도된 보도에 반발하여 여러 사람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 김현장은 이외에도 『매춘공화국』, 『호미로 땅을 파는 사람들』 등을 통해 70년대 후반의 비뚤어진 관광행태와 농정의 파행상을 고발하기도 한다.<sup>45)</sup>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제도언론인 『월간조선』과 『신동아』에 많은 기록문학이 발표되는데 이경남, 최일남, 오효진, 정순태, 그리고 전기문학의 개척에 공을 들인 민병산과 임중빈, 그외 송우혜, 이병철, 조갑제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한다.<sup>46)</sup>

80년대는 민중의식의 고양과 함께 노동자들의 수기가 붓물처럼 쏟아진다. 유동우, 석정남, 송효순, 장남수 등의 수기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sup>47)</sup> 이들 노동자들의 수기는 1970-80년대 노동자들의 의식과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노동자 개인 체험의 주관적 기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민중수기는 소설의 원자재는 될 수 있어도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가 소설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수기문학 등은 민중문학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보고문학의 경우이다. 이미 보고문학은 1947년 6월에 김오성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아낼 수 있는 전술적 문학양식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

44) 『르브르시대』의 창간사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 준다. “르브르문학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사실, 숨겨진 진실을 곧고 바르게 펴주는 일련의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감춰진 현장을 쫓아 생동하는 사건의 내막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언론의 기능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려 한다”(『르브르시대』 창간사, ‘어둠을 저갈 한 마리의 속죄양’)

45) 정영진, 「재미와 민중성이 결합된 기록정신」, 『한길문학』 6, 1990.10, 106쪽.

46) 정영진, 앞의 글, 107-109쪽 참고.

47) 당시의 주요 수기 및 보고문학 자료는 유중하의 「'위기시대'의 위험한 문학양식」(『한길문학』 6, 1990.6)의 부록에 상세히 나와 있다.

고<sup>48)</sup> 신승엽은 70년대 후반에 나온 노동자들의 수기, 일기, 편지, 호소문 등을 민중투쟁에 대한 보고문학적 형상화로 보고 있다.<sup>49)</sup> 이러한 보고문학의 흐름은 80년대에 한층 더 활발히 전개되는데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 128일의 기록인 「노동자여 무기를 들라」는 1989년 현대중공업 투쟁을 다룬 보고문학으로 정부 당국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세계관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으므로 목적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파업투쟁의 과정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가운데 구호나 대자보 총파업가 등의 노래가사가 실리기도 하는 등 장르복합의 성격을 보여준다.<sup>50)</sup> 그리고 80년대 노동문학의 성과인 안재성의 『파업』, 이인취의 『활화산』, 윤기형의 『선생님』, 원명희의 『바늘반지』, 홍승일의 『철의 기지』 등의 이런 르포르문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문학의 형식을 띤 것이다.<sup>51)</sup>

이상에서 살핀 우리 기록문학은 역사적 격동기에 사실의 전달과 기록이라는 목적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대 역사서에서부터 조선조의 실기문학 기행문학, 전기 등 그리고 현대문학에서의 수기, 르포르, 논픽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쓰여지고 또 읽히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문학사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증언소설의 바탕이 실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소설의 원자재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

#### 4. 증언소설의 외래적 경향

증언문학은 독자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려는 양대전간의 작가들의 공동된 노력, 2차대전후의 실존작가들의 연대와 참여의 구호 속에서 증언이 우위를 보여왔던 사정에 근거한다. 그리고 일체의 작중인물과 성격을, 심리와 사

48) 김오성, 「보고동신문학 제문제」, 『문학비평』 1호, 1947.6(1989년 1월에 나온 『문학예술운동』 2에 재수록)

49) 신승엽, 「『보고문학』의 활발한 창작을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2, 1989.1.

50)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문학분과, 「노동자여 무기를 들라-현대중공업 파업투쟁 128일의 기록」, 『사상문예운동』 4호, 1990 여름.

51) 유중하, 「위기시대의 위험한 문학양식」, 『한길문학』 6, 1990.10, 115-116쪽 참고.



회를 축출하고 검증만을 임무로 삼는 이른바 ‘객관’만을 일 삼는 新小說派(反小說派)도 증언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sup>52)</sup> 그리고 사르트르가 『현대』 창간사에서 르포문학 주장을 주장한 데서, 사회주의문학전에서 ‘역사적 장르’란 이름의 기록문학인 오체르크를 강조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증언문학의 초기 형태는 여행기적 성격을 띠는 보고문학으로 푸쉬킨의 코카서스 지방의 여행기와 하이네의 여행기, 디킨즈의 미국수필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노동자 계급의 부상과 더불어 그들의 기관지인 『신라인 신문』이 발간되면서 더욱 활발해지는데 1848년 6.23 프랑스에서의 노동자 봉기를 앙겔스가 기록, 보고하는 『6월 23일 사건의 상세한 상황』, 『6월 혁명』, 『파리봉기의 경과』 등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보도문의 형태로 전달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1898년 러시아의 문장형식 중 하나인 오체르크Очерк에 새로운 내용이 결합된 고리키의 문학작품집 『오체르크와 단편소설집』이 발간되면서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이후 고리키는 『1월 9일』에서 1905년 2월 혁명 당시 니콜라이 2세의 노동자 계급 대중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 즉 ‘피의 일요일’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보고문학 작품의 이정표를 세운다. 이후 고리키는 『레닌』, 『소련기행기』, 『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보고문학의 기반을 다지고 노동통신원 운동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 또한 세라피모비치 등 작가들은 『프라우다』의 중군기자로 참가 백계러시아와의 전쟁을 『혁명, 전방 그리고 후방』이라는 보고문학으로 남긴다. 그리고 1930년 하리코프시에서 열린 제2차 국제혁명작가회의에서는 보고문학과 통신원 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론 보고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좌련’에서 보고문학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보고문학의 보급에 진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1937년 제 2차 국공합작 이후 주로 홍군 부대내의 창작운동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문학대중화의 프로그램으로 보고문학이 각광받게 된다.<sup>53)</sup>

한편 체홉은 『사할린 기행』에서 러시아의 극동 변방인 사할린 섬을 돌아보고 그곳의 기후 풍습 극한 생활을 현장감 있게 기록하여 전달함으로써 소설과는 다른 감동을 독자들에게 준 바 있다. 레마르크는 1차대전에 참전 전쟁의 공

52) 이진구, 「상상문학과 증언문학」, 『사상계』 111, 1962.9.

53) 유중하, 앞의 글, 116-118쪽 참고.

포를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전쟁의 참화와 인간성의 붕괴를 밀도 있게 그린 반전적인 중군기인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발간 많은 호응을 얻는다. 이 작품은 작가가 '전쟁에 의해 파괴된 한 세대에 관해 보고'하려는 의도로 발간된 수기 형식의 증언문학이다.<sup>54)</sup>

미국의 신문기자였던 존 리드는 러시아 혁명의 현장에 뛰어 들어 직접 보고 들은 혁명의 진상을 그가 수집한 전단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기록하여 『세계를 뒤흔든 10일간』(*The days that shook the World*)을 1919년에 출간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10월 혁명 자체의 충격적이고 극적인 여러 장면의 묘사를 치밀하게 마치 그 장면을 마치 독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실감있게 그리고 있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를 자신의 현장 체험과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사실적이고 박진감 있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앙드레 지드는 1920년대 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콩고를 여행하고 『콩고기행』을 내놓는다. 프랑스 식민정책의 가혹상과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의 참상을 고발한 이 기행문은 문명사회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한편 그는 1930년대 후반 소련을 다녀와서 『소련기행』을 발표함으로써 그때까지 노동자의 천국으로 세상에 알려진 소련사회를 관료주의와 새로운 계급주의 등 온갖 비리와 모순이 담겨 있는 충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좌익작가로 알려졌던 지드가 발표한 이 글은 각국의 좌익 지식인들 사이에 일대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sup>55)</sup>

미국의 기록문학은 1930-40년대 비판적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활발해졌는데 에드가 스노우는 1936년 대장정을 끝내고 연안에 도착한 모택동과 그의 홍군(紅軍)을 밀착 취재, 주요사건의 기록과 여행기록, 회견내용, 모택동의 전기를 포함한 약전과 홍군의 역정 등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1937년에 출판된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이었다.<sup>56)</sup>

존 건서는 『20세기의 내막』에서 20세기를 움직인 정치인 군인 예술인 과학자 등 역사적 인물들을 심층취재 소개하였다. 즉 히틀러에서부터 마블린 먼로에

54) E. M. 레마르크(신영진 옮김), 『서부전선 이상없다』(을지출판사, 1987).

55) 정영진, 앞의 글, 99-101쪽 참고.

56) 이 책은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보완하여 1968년에 수정본을 출간하고, 1971년에 다시 이를 보완하여 출간한다.

에드가 스노우(진홍범 옮김), 『중국의 붉은 별』(두레신서, 1985)

이르기까지 20세기를 주름잡은 인물들을 추적, 그 실상과 허상을 벗긴 것이다. 윌리엄 샤이러는 1960년 『제국의 흥망』에서 나찌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치밀하게 기록 서술하였다. 래리 콜린즈는 프랑스의 도미니크 라피에르와 함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란 책에서 파리가 연합군 손에 해방되기 며칠전의 공방전을 각종 기밀 문서와 고문서, 증언 등을 통해 치밀하게 재현해 보이고 있다.<sup>57)</sup> 그 외에도 선원들의 노동조합 투쟁을 생생히 묘사한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강에서』와 잭 런던의 『늑 속의 사람들』, 업튼 싱클레어의 『도살장』 등이 주목할만한 증언문학들이다.

독일에서는 10월 혁명의 영향으로 1920년 전후 신즉물주의 신사실주의 등의 창작방법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어 르포르타주 양식이 각광받게 된다. 그 결과 보고문학 모음집집인 『오르피드로 가는 길』이 발간되고, 에른스트 키쉬는 보고문학과 통신원 운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2차 대전 후 소설 형식이 다양화하는 과정에서는 기록이나 르포르타주 문학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클루케의 『이력서』(*Lebensläufe*)나 『戰記』(*Schlachtbeschreibung*)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sup>58)</sup> 그외 한국전쟁에 관한 기록문학은 미국의 교수 존 패어뱅크의 『한국전쟁』과 일본의 전사 연구가 고지마 노보루의 『조선전쟁』이 있다.

60년대 미국에서 활발해진 뉴저널리즘은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다른 방법 즉 더 큰 스케일의 사건을 다루고, 간결한 문장과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나 장면(Seen)의 처리에 작가의 주관적 표현기법이라 할 소설적인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더욱 명료하게 함으로써 당대의 사실을 더욱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sup>59)</sup> 뉴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사실적 근거와 소설적 방법을 사용하므로 증언소설과 같다. 여기에는 캐포터의 『냉혈』이나, 케이 다리스의 『명성과 무명』, 그리고 노만 메일러의 『밤의 군대』 등이 있다.<sup>60)</sup>

T. 캐포터의 『냉혈』(*In Cold Blood*, 1966)의 경우, 이 작품은 미 캔사스주의 한 시골 농가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되고 그 6년후 범인 두 사람이 교수형에

57) 정영진, 앞의 글, 101-102쪽 참조.

58) Fritz Martini(황현수 옮김),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독일문학사』 하(을유문화사, 1989), 390-391쪽 참고.

59) Nicolaus Mills, 앞의 책, <Introduction> 참고.

60) 정영진, 위의 글, 102쪽.

처해진 실화를 추적한 것이다. 여기서 캐포터는 예술의 기록성과 기록의 예술성의 변증법적 방법론이라는 창작방법을 기술하는데 1) 작가는 작품 속에 등장해서는 안된다. 2) 선택에 의해 작자의 견해가 나타난다. 3) 창작적 처리(기술적 숙달)의 필요, 즉 현실의 세계해석을 분해하여 '사실'과 '의미'로 갈라낸다. 4) 모든 목격자(증인)의 증거진술에 의해 재구성한다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사실'을 분석하여 사실을 '사물'과 '의미'로 분해하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다큐멘타리와 픽션이다.<sup>61)</sup> 이는 곧 증언소설의 형식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70년대에 뉴저널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기록문학은 명치시대부터 있어 왔다. 1890년 요코하마 겐노스케의 『일본의 하층사회』는 지금도 평가되는 작품이다. 일본의 기록문학은 군국주의 시대에 다루지 못한 대사건과 전쟁범죄 등이 전후의 자유 언론 시대와 더불어 재발굴, 폭로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실록문학 작품은 '베스트 20'이 있고, 실록문학상인 '오야소이치 넌픽션상'인 권위있는 수상제도도 있다.<sup>62)</sup>

본격적인 증언문학의 외래적 모습은 중남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증언소설은 60-80년대의 중남미를 배경으로 급박한 사회상황을 원동력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을 역동성 있게 파악하여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작품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중남미 현대소설의 한 특징으로 기록문학적 리얼리즘을 정당화하는 노력의 산이다. 1966년 미겔 바르넷의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sup>63)</sup>은 최초의 증언소설로 민중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고 이를 재구성하므로써 사회학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증언소설의 형식은 예술성과 사실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한다. 즉 자료수집의 과학적 방법과 미학적 텍스트 구성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한다. 그럼으로써 공식 예술과의 차연화 과정을 통해 역사라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 전개해 나가면서 기존의 역사를 탈신비화시켜 나감으로써 기록적 사실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다.<sup>64)</sup>

61) 김윤식, 「픽션과 논픽션」, 『월간중앙』 135, 1979.9, 198쪽 참고.

62) 정영진, 「재미와 민중성이 결합된 기록정신」, 『한길문학』 6, 1990.10, 102-103쪽 참조 이 글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록문학 작품으로 알려진 20편이 소개되어 있다.

63) 이 작품은 캐포터의 『맹혈』에서 접근방식과 서술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뉴저널리즘과 증언소설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송병선, 앞의 글, 64, 85쪽 참고.

기록문학의 전통으로부터 출발한 증언문학은 사회주의 문학권의 목적의식에 따라 보고문학의 형식, 그리고 1·2 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증군기 또는 수기 형식, 또는 격변하는 현대사의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록하는 형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의 미국의 뉴저널리즘은 역사적 기록과 체험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다른 장면과 대화 등 소설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논픽션소설과 함께 증언소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중남미의 증언문학은 60년대 이후의 급박한 중남미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 및 자료 등을 민중들의 증언과 함께 재구성함으로써 사실성과 미학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의 소명의식에서 발생한 소설 양식이다. 뉴저널리즘과 중남미 증언문학의 방법은 유사하며 증언문학의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 5. 증언소설의 전개양상

예술의 기록성과 기록의 예술성을 통일 지양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의 방법으로 정립하는 일<sup>64)</sup>이 증언문학이 지향하는 바다. 역사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지배 세력이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가 은폐·왜곡될수록, 그것을 폭로 수정하려는 문학적 시도는 강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역사소설의 존재의의이고, 그것이 체험적 당대일 때는 증언소설의 의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역사적 증언은 민족의 공동체적 운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성의 의의를 갖기도 한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증언문학의 전사적 요소는 민족정신사적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이기영의 「봄」,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 「탑」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증군문학을 들 수 있다.

증군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신영덕의 『한국전쟁기 증군작가 연구』를

64) 송병선, 「증언소설의 시학과 그 가능성-미겔 바르넷의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1996 봄 참조.

65) 김윤식, 앞의 글, 103쪽.

들 수 있다. 이 글에는 문인들의 종군활동이 밝혀져 있고 종군작가들의 소설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 從軍記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록에 종군작가의 종군기가 실려 있다. 종군기는 당연히 증언문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종군작가들의 전쟁소설은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현재적 의미에서도 한국전쟁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66)</sup>

한편 광종원은 한국전쟁기 소설을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일선 전투 상황을 취재로 한 것, 적치하에 겪은 기록, 일선과 후방이 연계적으로 취재되어 있는 것, 피난 생활의 실태를 묘사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앞 두 유형은 그 수가 적고 뒤의 두 유형이 월등히 많다고 하고 있다.<sup>67)</sup> 이 모두는 자신의 체험을 근간으로 서술된 것으로 증언문학의 전사적 특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사량은 1945년 5월 말 연안으로 탈출, 항일 유격대의 일원으로 활약한 사람으로 해방후 서울로 돌아와 이 때의 탈출기, 항전기, 생활록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노마만리』(駑馬萬里)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개작과정을 거치면서 소설적 기법을 많이 원용하게 된다. 그는 일제 때 『산가 3시간』에서 강원도 화전민 부락의 실태를 보인 바 있고 그 뒤 평양에 남아 있다가 한국전쟁 때 종군작가로 남하하여 『지리산 유격대를 지나며』, 『바다가 보인다』 등의 종군리포트를 남기고 요절한다.<sup>68)</sup>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은 4.19의 시대상을 묘사한 소설이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있는 1960년 4월 26일 전날 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임화수가 운영하던 한 극장이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 소설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중간에 서술자의 분석이 개입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격적인 증언소설이 80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다는 점에서 「무너진 극장」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주현의 「조선총독부」는 1900년대부터 광복까지 반세기에 걸쳐 우리 역사

66)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국학자료원, 1998), 262-263쪽 참고.

67) 광종원, 「6·25동란 이후의 작단 개편」(『신천지』 1953.5), 「상반기 작단 총평」(『문예』 1953.9) 참고.

68) 정영진, 앞의 글, 105쪽.

를 말살하고 굴절시킨 잔혹상을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픽션의 요소를 가미한 증언소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 일제의 침략과 우리 민족의 반응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반 없는 시대여서 역사학에서도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작가 유주현은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책자, 각종 신문 인쇄물 등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것<sup>69)</sup>으로 그 제목 옆에 '실록대하소설'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장르를 표시했다.<sup>70)</sup>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소재를 중심으로 한 증언소설은 상당히 많다.

이병주의 『지리산』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3년에서 휴전 이후인 1954년 8월까지에 걸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을 다룬 것으로 9월 총파업·10·1 사건-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지리산 입산대의 전과정을 사실을 토대로 추적, 재구한다. 즉 빨치산에 관한 기록, 신변잡기, 수필, 전기, 논문, 신문기사, 고백적 일기, 증언 등을 활용하여 빨치산 입산활동의 구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의 『남부군』은 사실을 사실로 역사의 기록으로만 기록하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드러난 빨치산 체험수기로 빨치산의 투쟁과 산악생활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기록과 증언으로서의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역사학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금기의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나라 건설시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음을 알리는 작업은 아직 그 비극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증언문학의 의의를 돋보이게 한다.

유기수의 『지리산 사람들』, 『북에서 온 기러기』 등은 실화를 소설미학으로 재구성하는 증언문학의 특성을 지닌 작품이다.<sup>71)</sup> 이 작품집에 실린 여러 작품들은 지리산 주변에 살면서 국방군과 빨치산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의 증언과, 지리산을 배경으로 빨치산과 전투경찰간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69) 여기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의 대답에 잘 드러나 있다.

유주현, 「대담/소설 조선총독부론」, 『신동아』 1967.7.

70) 이임자, 앞의 책, 272-275쪽 참조.

71) 장병희, 「한국 빨치산 문학 연구」, 『어문학논총』 14(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95.2.), 96-105쪽 참고.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은 여순사건을 소재로 사건진압 완료 직후부터 휴전까지를 배경으로 좌우익의 대립과 치절한 보복과정, 군·경 사이의 공혼쟁탈, 피난지 부산에서의 일부 상류층의 부정과 부패 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사건에서부터 한국전쟁기까지를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각종 사료 등을 활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 좌우익 인물들의 모습, 농민들의 수난 등이 총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민족분단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수난과 이픔의 증언인 것이다.<sup>72)</sup>

김원일의 『겨울골짜기』는 거창사건까지의 몇 달 동안의 이야기가 날짜별로 구성되어 본격적 증언소설의 면모를 보이며, 『노을』은 1948년 전후 진영지방에 파급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불의 제전』은 한국전쟁 전과 전쟁의 초기인 1950년 1월에서 10월까지를 작가의 유년체험과 취재를 통한 증언, 그리고 각종 기록물 등을 통해 날짜별로 구성하고 있다. 서술시점의 다양화와 사실성과 허구성의 유기적 결합이 당대의 상황을 개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증언소설의 한 전범을 보이는 작품이다.<sup>73)</sup>

권운상의 『녹슬은 해방구』는 『지리산』, 『태백산맥』 등과 유사하나 입산 무장투쟁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어 증언소설의 특징인 다양한 보여주기에 는 미흡한 작품이다. 작가는 80년대 초 부우 당해 3년여 동안 복역중 장기수들과 접촉 그들의 증언을 채록 9권의 책으로 서술한 것으로 1942년 국내 항일 유격대의 형성초기부터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의 시간을 다룬 실록임을 강조하면서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려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달수(임규찬 옮김)의 『태백산맥』은 해방 전후의 전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 9월 총파업과 10·1 사건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은직의 『택류』는 토지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지아의 『빨치산의 딸』은 자신의 이야기인 「빨치산의 딸」과 실제 당시를 체험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인 제1부「조

72) 조정래, 『작가의 말』, 『태백산맥』 1(한길사, 1986)

73) 『불의 제전』의 증언소설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찬영, 「증언소설과 가족공동체주의」, 『지역문학연구』 제2호(경남지역문화학회, 1998 봄) 참조.



국이 부른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인 제2부「지리산의 영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빨치산 활동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인민군 여군 소위로 겪은 한국전쟁 3년간의 증언을 소설화한 김정섭의 『떨어진 꽃은 줍지 않는다』 역시 증언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김태영의 『인민군』 3부작은 인민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저자의 체험적 증언소설이다. 그리고 김희민이 엮은 『해방3년의 소설문학』 당시의 작가들이 썼던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그 동안 우리 분단문학사가 금기시했던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 증언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sup>74)</sup> 그의 강용준의 『유월에서 팔월사이』는 작가 자신의 포로수용소 체험을 토대로 계계포로수용소 생활과 탈출과정을 다룬 작품이고 강준식의 『적과 동지』는 해방이후의 정치적 상황의 이면을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증언소설이다. 또한 노가원의 『붉은 까마귀』는 추리기법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리산양민학살사건'과 그 후를 다룬 증언소설이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작가의 역사인식 자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당시의 민족사적 중요과제였던 쟁점들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따라서 증언소설의 특성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 당시의 중요쟁점은 1) 8·15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2) 친일파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문제로 이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 인식의 자세와 결부된다. 3) 토지문제를 둘러싼 작가의 태도 4) 당시의 정치세력들을 어떻게 분석, 평가했느냐 5)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의 수락과 반대 여부, 단정 수립지지와 반대 여부 등이다.<sup>75)</sup> 이들 작품들은 민족 고통의 근본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역사적인 전형으로서의 여러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즉 여러 사건들의 역사적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문제를 형상화함으로써 그 극복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 이들 작품의 주제가 된다.

다음은 4·3항쟁과 이를 다룬 증언소설에 관해 살펴보자.

74) 한국전쟁의 민족적 비극을 다루고 있는 이기형의 연작시 『지리산』과 한 빨치산의 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김형수의 서사시 『지리산』 등은 역사적 기록과 증언적 사실에 바탕하고 이를 재현 알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므로 '증언시'로 볼 수 있다.

75) 임현영, 『변혁운동과 문학』(범우사, 1989), 127-128쪽 참고.

제주 4·3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이후에 들어서야 4.3을 일차적으로 사실의 차원에서 복원시켜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면서 몇 종류의 실록과 자료집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주 4·3항쟁에 관한 본격 연구서가 출간된 바 있다.<sup>76)</sup> 따라서 4·3항쟁은 아직도 그 역사적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를 다룬 소설은 필연적으로 증언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학계의 관심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이들 작품의 증언소설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드러내 보이는 점이다.<sup>77)</sup>

4·3을 바라보는 역사인식은 먼저 4·3을 제주도민의 폭거로 보는 극우적 입장과 다음으로 수난사로 해석하려는 관점, 그리고 분리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관점, 마지막으로 민중해방운동의 역사적 맥락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작업들은 주로 네 번째의 관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현기영의 「순이 삼촌」 1948년 12월 16-19일에 있었던 북춘국민학교 양민 학살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기사는 어느 신문에도 나와 있지 않다. 현길언은 그의 「도령마루의 까마귀」, 「길」, 「아스팔트」 등의 작품에서 4·3의 역사적 구제성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역사의 복원을 위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sup>79)</sup> 현길언은 「우리들의 조부님」, 「씩어지지 않는 비문」, 「신열」,

76) 4·3에 대한 연구는 아라리 연구원의 자료집인 『제주민중항쟁』 1,2(소나무, 1988)과 4·3연구소의 『이제사 말했수다』 1,2(한울, 1989),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주 4·3항쟁 연구』(역사비평사, 1999) 등이 있고 체험담 기록집인 오성찬의 『한라산의 통곡』(소나무, 1988)이 있다.

77) 제주도의 4·3 항쟁을 다룬 이산하의 『한라산』은 항쟁주체의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다. 모두 29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한라산』은 4·3 항쟁을 전후한 국내외의 정세와 항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는 시와 서정화되어 있는 시들로 구분됨으로서 역사성과 개인성이 결합된 증언시이다.

한수영, 『제주 4·3항쟁-그 문학적 형상화의 궤적』, 『문학과 논리』 2(태학사, 1992), 339-344쪽 참고.

78) 한수영, 앞의 글, 332쪽 참고.

79) 현기영은 4·3 외에도 제주의 수난사를 증언소설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변방에 우짖는 새』와 『바람 타는 섬』이 그것이다.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현기영은

「불과 재」, 「우리들의 어머니」, 「무흔곳」 등의 작품에서 오늘날에도 씻기지 않는 제주의 비극의 현재성을 집요하게 소설화시키고 있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은 1947년 3월 1일에 일어난 '제주 3·1 사건'으로부터 제주출신 인민 유격대장 이덕구가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는 1949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일어난 항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역사의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석범은 제주도 출신의 재일동포 작가로 그의 『화산도』는 김봉현의 『제주도 피의 역사-4·3 무장투쟁의 기록』을 참고한 소설로 48년 2월말에서 5.10 총선 전일까지 두어달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까마귀의 죽음』(김석희 옮김, 소나무, 1988) 이 있다. 그의 4·3 소재 작품은 김석희의 『땅울림』, 「고여 있는 불」, 오경훈의 「당신의 작은 촛불」, 「세월은 가고」, 정순희의 「가치치기」, 김관후의 「저 섬에 불던 바람」 등 상당히 많은 작품이 있다.<sup>80)</sup>

그리고 연변에서의 김학철이 쓴 『해란강아 말하라』는 54년 무렵에 일제 시대에 간도지방의 우리 농민들이 또 다른 항일 혁명의 담당자였음을 밝히는 증언 소설이다.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증언소설<sup>81)</sup>로는 광주항쟁소설집으로 『일어서는 땅』이 있고, 홍희담의 「깃발」은 민중적 관점에서 본 광주항쟁 소설이다. 그리고 임철우의 『봄날』은 19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의 한정된 시간을 날짜별, 시간대별로 구성하고, 여러 인물의 시각과 여러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던 광주항쟁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언소설이다.

---

자신의 작품을 소설이 아닌 '역사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방성칠란>(1898)과 <이재수란>(1901)을 다룬 소설이다. 『바람 타는 섬』(1989)은 1932년 1월 구좌읍 하도, 세화 잠녀들의 중심이 되어 일어난 잠녀들의 생존권 및 항일 운동을 다룬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작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어서 집필한 것이다.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김영화의 「제주 역사와 문학」, 『탐라문화』 17(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77)을 참조.

80) 4·3 관련 소설목록은 김동윤의 「4·3 소설의 전개 양상」, 『탐라문화』 19(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8)의 부록에 상세히 나와 있다.

81) 그의 시인의 기록으로는 문명란 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5월광주항쟁시선집』(인동, 1987)이 있다.

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증언소설들을 살펴보면, 먼저 80년대의 수기문학은 민중문학의 가능성과 함께 증언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석정남의 「장벽」과 이택주의 소설집 『노동자의 노래』에서는 소설적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후 노동자 소설의 본격적인 출현을 맞게되는데, 정화진의 「씻뭍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은 들꽃처럼」, 홍희담의 「깃발」, 방현석의 「새벽출정」, 「내딛는 첫발은」, 한백의 「동지와 함께」, 김한수의 「성장」, 정도상의 「새벽기차」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정도상의 『천만개의 불꽃으로 타올라라』는 신흥정밀 사출공 박영진(1986년 3월 17일 죽음)의 스물 일곱 젊은 생애를 고인의 일기, 친지·동료의 증언, 취재를 토대로 소설화한 것으로 실명소설 또는 소설형 수기로 불리운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역사적 전형이 될만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바 증언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먼저 사건으로부터의 시간적 거리가 체험적 당대이거나 한 세대 전으로 비교적 가까워서, 자신의 역사적 체험 또는 당대의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다음은 당대의 자료들이 아직 발굴·조사·정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 대상이 되며 끝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증언문학의 의의는 사실 알리기 작업이 전제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전후에 관련된 8·15와 6·25 사이는 아직 민족사적 비밀이 많은 금렵구로 남아 있으며 이는 현대사의 모순과 비극을 알려주는 사건, 즉 제주4·3항쟁, 거창 양민학살사건, 광주민주항쟁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전쟁 전의 비밀스런 영역을 살피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은 분단 극복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증언문학의 늦은 출현 원인으로는 우선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본격적인 전쟁문학이 나올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홍기삼은 “전투는 끝났으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후적 시대상황이 형성되기는 했으나 새로운 시대의식과 창조적 열정으로서 전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잠시도 안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한국의 작가에게 어찌하여 전후 20

년이 지나도록 읽을만한 전쟁문학 하나 쓰지 못했는가라고 불만할 권리가 없다”<sup>82)</sup>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은 신문학기 이후의 파행적인 정치상황을 들 수 있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자 곧 강력한 외세에 의한 분할통치로 들어가 분단고착의 길을 걸었고 남북의 서로 다른 대립 상황 속에서 남쪽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전면을 휘감으면서 학자나 작가들이 가까운 과거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위협과 제약이 받아왔으며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지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니기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점은 80년대 이후 『태백산맥』과 『남부군』 등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그만큼 제약이 심각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한국현대사에 대한 지적 공동화를 메우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 민족사의 동질성을 복원하고 민족 통일에 대한 정당한 시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또한 그 아픔의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진행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왜곡된 역사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구로부터 벗어나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80년대에 본격적인 증언소설의 출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70년대는 한국사회의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했다는 사실이다. 즉 근대화의 모범해답이 선진국의 사회 속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대사회는 자기동일성의 확립이 비교적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픽션에의 집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80년대는 불투명기 때문에 논픽션에의 경향성이 강하게 성장한 것<sup>83)</sup>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80년대 후반의 문학현상 가운데 금기되었던 소재의 소설이 양산되고, 기록문학의 문학성 확보에 따른 장르확산과 논의 등을 들기도 한다.<sup>84)</sup> 여기에는 1988년 7월 29일 남·월북 작가들의 해금 영향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역사서술의 객관성은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만이 아니라 사실 선택에서의 주관성 배제와 선택된 사실들 사이의 양적인 균형에 대한 배려까지 갖추어 온전

82) 홍기삼, 「전쟁 그리고 문화의 수면」, 『월간문학』 56, 1973, 207쪽.

83) 김윤식, 앞의 글, 1979.9, 195쪽 참고.

84) 박덕규, 「한국문학의 보편적 지향을 향하여」, 『문학사상』, 1988.12, 56쪽 참고.

히 주어지는 것이다. 증언소설 역시 이 규칙을 따를 때 보다 온전한 양식이 될 것이다.

## 6. 마무리

기록문학의 전통으로부터 생성된 증언문학은 상상문학의 허구성과 기록문학의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설 양식이다. 본고에서는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과 전개양상을 검토하면서 증언소설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기록문학과 상상문학의 관계 속에서 증언소설의 위치를 검토하였고,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을 내재적 원천과 외래적 경향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현대소설에서의 증언소설의 전개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록문학은 창조적 문학과는 대응하는 문학으로 실제적 사실의 소재로만 이루어지며 그 하위개념에 기행문, 생활기록, 서간, 전기, 자서전, 다큐멘터리, 르포르쉴 등의 장르가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기록문학은 우리 문학 자산 중에서 상당한 양의 창작과 함께 많은 독자층의 확보가 가능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문학은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기록문학의 소재가 되는 사실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거나, 집단 사회의 연대의식으로 확대되는 사실은 물론, 시민의 전체성을 대변하게 되거나, 역사적 인식을 내포하게 되는 것 등으로 상상문학과는 다른 공감의 확산이라는 효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록문학이 사실의 기록이라 해서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여러 가지 사실의 기록 중에서 기록자의 기록목적에 따라 그 사실들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하면서, 사실의 나열에 있어서도 소설의 플롯과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극적효과를 더하게 된다. 다만 사실의 기록이란 면에서 허구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증언문학은 기록되지 못하거나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창작문학이 허구적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한 데서 발생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증언문학은 작가의 체험 또는 증언을 바탕으로

로 체험적 당대이거나 한 세대 전의 과거를 다루고, 사회학적 방법과 문학의 융합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하며 역사적 진실성을 지향하는 소설이다.

3) 증언소설의 내재적 요인의 효시는 기록문학의 원천에서부터 찾아진다. 기행문의 성격을 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과 역사서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 『제왕운기』 등에서, 그리고 조선조의 실기문학(實記文學)수 있다. 근대지향의 기록문학은 17세기 이후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들 작품의 소개는 전란, 여행, 퇴위한 체험 등 공동 관심의 대상이면서 현실생활과 직결된 것 등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파악으로 근대적 산문정신에 바탕을 둔 일기, 기행, 생활기록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현대문학에서의 기록문학은 수기, 증군기, 보고문학, 르뽐, 논픽션 등 다양한 용어와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쟁과 빨치산 투쟁, 4·3 민중항쟁, 광주 민중항쟁, 노동운동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과 경향을 아주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4) 우리 기록문학은 역사적 격동기에 사실의 전달과 기록이라는 목적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서에서부터 조선조의 실기문학 기행문학, 전기 등 그리고 현대문학에서의 수기, 르뽐, 논픽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쓰여지고 또 읽히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문학사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증언소설의 바탕이 실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소설의 원자재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

5) 증언문학의 외래적 경향은 격변의 현대사를 증언하려는 목적의식에서 발생한다. 사회주의 문학권의 목적의식에 따라 보고문학의 형식, 그리고 1·2 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증군기 또는 수기 형식, 또는 격변하는 현대사의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록하는 형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의 미국의 뉴저널리즘은 역사적 기록과 체험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다른 장면과 대화 등 소설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논픽션소설로도 불리는 증언소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중남미의 증언문학은 60년대의 급박한 중남미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 및 자료 등을 민중들의 증언과 함께 재구성함으로써 사실성과 미학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의 소명의식에서 발생한 소설 양식이다. 뉴저널리즘과 중남미 증언문학의 방법은 유사하며 증언문학의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6) 우리문학사에서 증언문학은 현대사의 모순과 비극을 알려주는 사건이면서 아직 민족사적 비밀이 남아 있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사건들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 등 역사적 전형이 될만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예술의 기록성과 기록의 예술성을 통일 지양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의 방법으로 정립하는 일이 증언문학이 지향하는 바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가 은폐·왜곡될수록, 그것을 폭로하고 극복하려는 문학적 시도는 강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증언소설의 의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역사적 증언은 민족의 공동체적 운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성의 의의를 갖기도 한다.



Abstract

## The Formativ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Jungon-Literature

Jung Chan-Young

The Jungon-Literature produced from the tradition of Non-imaginative lit(non-fiction) is a form of the fiction that compensates for the fiction of the Imaginative lit and the limitation of the Non-imaginative lit. The Non-imaginative lit is contrasted with a pure fiction and constituted of actual materials. There are sub-genres such as a travel-description, a writing of the life, letters, a biography, an autobiography, a documentary, and a reportage. The Non-imaginative lit has quite lots of readers in the world of Korean literature, and it exists in any other countries.

I think, when the historical facts couldn't be remained and distorted, and when a pure fiction should only head for the fictitious world, the Jungon-Literature must be produced in compensating for these defects. The Jungon-Literature bases on the experiences of the writer or the verbal evidences, and deals with the experiences in the writer's lifetime or the past experiences of the previous generation. It has the formative neutralization of sociological methods and the confusion of literature, and heads for the credibility of the history.

I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Non-imaginative lit is full of the variety with terms and natures which are represented by a memorandum, a reportage, a documentary and a nonfiction and so on. In particular, It deals differently with the Korean War and the big events and the tendencies of the modern history such as the Palchisan's struggles, the 4.3 Public

Resistance, the Guangju Resistance, and a Labor movement. the Korean Non-imaginative lit has originated from the purpose of conveyance and writing events, which has occurred in the convulsive periods. It contains from a historical book, a practical literature, a travel description, and a biography in the Josun Dynasty to a memorandum, a reportage, and nonfiction in the modern literature. Therefore, we must evaluate the Dacumentary's values of the literature history. The Jungon-Literature remains a documentary significance, because it has based on the actual materials.

The foreign tendency of the Jungon-Literature originates in the purpose that writers must witness the history in the convulsive period. The New Journalism and Middle and North America's Jungon-Literature has used the similar methods. They are examples which has revealed its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The Jungon-Literature, as the literature, is the project that reveals the contradictions and tragedies of the modern history. It concretely illuminates events before and after the Emancipation and the Korean War, and Guangju Pubic Resistance which are remained to be proved. The Jungon-Literature must build new method of art, uniting the documentary of art with the art of documentary. The more the dominance ideology has concealed and distorted history, the stronger the literature has attempted to disclosure and get over it, and so will it forth. T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Jungon-Literature. It also is the significance at present, because this historical witnesses are related with the national community's destiny.